

이대로 쓰러질 수는 없다



▲일부 학생들은 아직도 한국 경제 위기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일상에서부터 검소한 소비생활을 실천함으로써 경제거품을 빼야 한다 (사진은 지난 24일 명동거리)

□ IMF와 학생들의 소비생활

자기 능력 향상시킬 사전준비 필요해

지난 12월 6일은 우리에게 '국치의 날'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지 1년도 못돼,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것이다. 경제대국임을 자랑하던 우리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한 마디로 '아시아의 용'이라 떠올랐던 한국경제가 '지렁이'로 추락한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만 달러를 넘어서고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다고 기고만장하던 우리경제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연일 신문지면이나 TV매체에서 떠돌고 있는 IMF(국제통화기금)의 여파는 생각보다 강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으로, 우선 내년 1월부터 휘발유의 소비자 가격이 현행 1당 1천 83원에서 1천 1백 35원으로, LP가스는 kg당 6백원에서 6백 24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우리들의 발이라 할 수 있는 교통요금도 내년부터 약 8-10% 올리기로, 국내선 항공요금도 18.2%-19%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재정경제원의 IMF 자금지원과 관련,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정수요와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 부족을 충족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리고 요즘 같이 추운 겨울 길거리를 지나가면 우리들의 마음을 녹여주었던 봉어빵과 호떡도 IMF 한파에 밀려나고 있다. 봉어빵과 호떡의 재료인 밀가루와 설탕 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IMF 체제 여파로 휘발유 등 기름값 인상을 우려한 일반 시민들이 유류를 매점 매석해 가정집이나 건물 지하실에 비축하는 행위가 일어나 단속을 벌이는 불

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마치 누란지세(累卵之勢)처럼 위태로운 국가 위기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부분은 그리 크지는 않다. 직장을 잃은 실업자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부모님과 같이 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쓰기 때문이다. 간혹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 하지만 일

“대다수의 학생들이

우리나라가 현재 처해

있는 어려운 현실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그저 먼 나라 이야기로만

인식하고 있어 안타깝다”

자리가 없어 그마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한국대(언론정보학과)교수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우리 나라가 현재 처해 있는 어려운 현실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그저 먼 나라 이야기로만 인식하고 있어 안타깝다. 지금 경제적으로 많은 여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미래에 대한 상황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현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의 능력과 자질을 배양시킬 사전준비

를 해야한다.”고 말하며 IMF시대를 맞아 학생들이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실 불황, 경제위기, 국가부도상황에서도 일부 학생들은 무절제한 생활 속에 살고 있다. 의류, 술값 등에 신용카드를 마구 사용하고, 외제 수입품을 아무런 생각 없이 구입하는 등 IMF 한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들이 주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PCS, 시티폰과 자동차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4, 25일은 크리스마스 연휴로 인해 일부 학생들의 무절제한 생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학생들이 모인 학교 앞을 비웃 명동, 대학로, 종로거리 등에서 새벽 1~2시까지 흥청망청 노는 모습이 역력했다. 물론 IMF 한파로 인해 예년보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연말을 보냈지만 아직도 우리 나라의 위기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거품만 가득한 한국경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학생들이 전면적으로 나서서 문제점을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햄버거, 수입맥주, 양담배를 비롯 외제 브랜드를 선호하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사실 국산품이 외제 브랜드보다 부족한 것은 없다. 단지 학생들의 잘못된 외제선호사상 때문인 것이다. 또한 해외여행, 어학연수 등도 자제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이다. 물론 이런 점들은 IMF시대에 들어

서부터 누구나 알고 있고, 해오던 일이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학생 모두가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위기에 대해 국제 미셀 캄드쉬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한국경제위기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계속 호전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선출된 김대중당선자는 “우리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햄버거, 수입맥주, 양담배를

비웃 외제 브랜드를

선호하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이는 잘못된 외제 선호

때문이다

시장경제와 개방경제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낙관론만 있는 것은 아니다. 희망적인 전망이 희망적인 현실로 바뀌기 위해서는 전국민적인 문제인식과 실천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김동혁기자〉

□ 불황과 대학생

아르바이트문 ‘바늘 구멍’

IMF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들의 삶의 유형은 간단히 두 부류로 나뉘볼 수 있다. 경제 불황에도 아랑곳 없이 곳곳이 자신의 소비생활을 지속해 나가는 부류와 경제불황의 여파로 당장 다음 학기 학비를 걱정해야 하는 학생들.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부모에게서 받는 용돈, 혹은 생활비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각자 조금씩 다르겠지만, 많은 대학생들이 열악한 주머니사정을 회복세로 돌리기 위해 이리저리 바쁘게 뛰어다닌다. 물론 IMF한파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지난 10일 강서구청의 경우 70명을 모집하는 데 5백명 이상이 신청을 했다. 7대 1의 높은 지원 현황은 입시경쟁률을 방불케 한다. 각 PC통신의 구직란에서도 ‘시커먼 주면 뭘든지 하겠다’는 자기만의 광고를 상당수 찾아볼 수 있다. 업종, 보수를 떠나 일자리를 얻게되는 것만으로도 크나큰 행운이라는 식이다.



▲아르바이트와 취업이 이제는 하늘에 별따기이다. 이제 학생들은 자기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물론, 우리학교 학생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취업정보보실에선 작년 이맘때쯤 하루평균 5~10건씩 들어오던 아르바이트모집 공고가 최근에는 3건 이상 들어오는 날은 거의 없다고 밝힌다. 또한 졸업생들의 아르바이트 문의도 크게 늘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상당수의 졸업생들은 이미 취업이 결정된 상태에서 연수를 받거나 인턴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엔 취업이 되고서도 대기발령상태로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원래 있던 직원들도 잘려나가는 판국에 회사측에 항의하는 법적대응 등은 상상도 하기 힘들고, 명목상의 취업 상태로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어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본다는 것이다.

한편, 이경규 취업정보실 계장은 “줄어드는 용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식의 사고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어려운 경제에 스스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나선다는 순수한 마음을 갖길 바란다”라며 대학생들의 무절제한 소비생활을 비판했다. 〈최응섭기자〉

문화단신

제17회 테이저인 나이트 오는 1월31일 서울캠퍼스 복지회관 소극장에서 수원 캠퍼스 영어회화동아리인 테이저의 ‘테이저인 나이트’가 열린다. 2부로 나뉘어진 이번 공연은 학생들에게 영어의 이모저모를 선보이게 되는데 1부에서는 토코쇼와 합창을, 2부에서는 원어연극을 공연할 예정이다.

장혜진 콘서트 꿈의 대화 내게로 등 감미로운 발라드곡의 노래로 꾸준히 사랑을 받아온 장혜진씨가 히트곡과 새로운 레퍼토리의 팝송으로 콘서트를 연다. 애절한 가사와 절제된 감정으로 지난 11월 공연도 매진되는 기쁨을 토했던 그녀는 TV에서 볼 수 없는 말솜씨와 무대매너로 이번 콘서트도 알차게 꾸밀 것이다. 공연은 오는 1월23일부터이며 문의 및 예약은 (주)라이브클럽 776-5417으로 하면된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런지....



벼랑끝에 선 경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대학주보는 작지만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는 몇가지 대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1. 외국 브랜드 선호풍토를 바꾸자.

청바지, 티셔츠부터 배낭, 카세트 등 우리가 입고 가지고 다니는 것들 중 외국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

누구나 남들보다 세련되어 보이고 싶은 과시욕이 적잖게 있겠으나 이런 것들을 개개인이 모두 채우기엔 너무나 시기가 좋지 않다. 국가경제를 살리는데에는 작은 일이지만 나라를 걱정할 줄 아는 의식이 필요한 것이다.

2. 우리차맛을 배워보자.

우리가 흔히 마시는 커피는 100% 전량수입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환율인상으로 모든 수입품 가격이 오르고 있는 지금, 커피 소비를 줄이는 것이 그나마 국내 달러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커피를 줄이고 우리차를 마셔봄으로써 우리것에 대한 애착이 생길 수 있겠다.

3. 양담배를 피지말자.

외국 담배회사가 주시하는 동남아지역 소비시장 중 우리나라는 항상 으뜸 수입국을 차지한다. 우리농가살리기의 일환으로 지금껏 양담배소비량이 많이 줄었다 하나 지금은 더욱 그 노력들이 요구되는 때이다.